

AG초특태고딕

초특태고딕은 한글 디자이너 최정호가 만든 돋보임용 민부리 글자 원도로, 글자 줄기를 네모칸에 딱 차도록 두껍게 그린 것이 특징이다. AG초특태고딕은 초특태고딕 원도 분석을 바탕으로 만든 디지털 글꼴이다. 한글은 원도에서 볼 수 있는 과감한 굵기 보정, 인쇄 여분띠 현상, 섬세한 공간 분배를 살렸다. 한글 수는 추가자 연구를 통해 KS코드 2,350자에서 224자를 더하여 2,574자를 만들었다. 또한 로마자와 기호활자는 꼭 필요한 범위만을 한글과 어울리도록 새롭게 만들었으며, 일부 기호활자는 성격에 따라 굵기에 변화를 주었다.

원도 설계

최정호

원도 복사본 제공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기획

안상수 노은유

디자인

노민지 정하린

제작

안그라픽스 타이포그래피연구소

감수

권정민 & 스테판 파사라 김기창

김병조 류양희 문장현 심우진

글자 수

한글 2,574자

로마자 94자

기호활자 859자

글꼴 포맷

OTF (win/mac)

1978년 최정호는 진명출판사 한구석에 책상을 하나 놓고 일을 하고 있었다. 단출한 책상 위에는 먹물과 세필, 원도 모눈종이와 오구, 연필, 지우개, 돋보기가 있었을 뿐이었다. 최정호는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 글꼴에 대해서도 해박했고, 글자에 대한 대화를 즐겨워했다. 또한 “나는 한글도 한자도 그릴 수 있으니 만약 글자 올림픽이 있다면 금메달은 내가 딸 것”이라는 농담도 즐겨했다.

『한글 디자이너 최정호』, 안그래픽스, 2014.

1978년 최정호는 진명출판사 한구석에 책상을 하나 놓고 일을 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먹물과 세필, 원도 모눈종이, 오구, 연필, 지우개, 돋보기가 있었을 뿐이었다. 최정호는 영문 글꼴에 대해서도 해박했고, 글자에 대한 대화를 즐겨워했다. 또한 “나는 한글도 한자도 그릴 수 있으니 만약 글자 올림픽이 있다면 금메달은 내가 딸 것”이라는 농담도 즐겨했다.

『한글 디자이너 최정호』, 안그래픽스, 2014.

**1978년 최정호는
진명출판사 한구석에
책상을 하나 놓고
일을 하고 있었다.
단출한 책상 위에는
먹물과 세필, 모눈종이,
오구, 연필, 지우개,
돋보기가 있었을 뿐이었다.
최정호는 영문 글꼴에도
해박했고, 글자에 대한
대화를 즐겨워했다.
또한 “나는 한글도 한자도
그릴 수 있으니 만약
글자 올림픽이 있다면
금메달은 내가 딸 것” 이라는
농담도 즐겨했다.
『한글 디자이너 최정호』,
안그라픽스, 2014.**

로만 알파벳
roman alphabets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문장부호
punctuation marks

! ' " , . : ; ? _ - - - - - —
¡ « · » ¿ ‹ › ‘ ’ “ ” 、 。

숫자
numerals

0 1 2 3 4 5 6 7 8 9

괄호
bracke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볼
symbols

■ © ★ ♥ ☹ ☺ ☎ ☎ ☎ ♀ ↑ ☹

수학기호
mathematical symbols

< = > + - ± × ÷ ≤ ≥ φ ∞ Σ √ ∴
≡ ≠ ≡ ≡ ≡ ≡ ≡ ≡ ≡ ≡ ≡ ≡ ≡ ≡ ≡ ≡

통화
currency symbols symbols

₩ \$ £ ¥ € ¤ ¢